

이병헌 “영화 ‘남산의 부장들’은 실화이면서 세련된 누아르”



“실화를 바탕으로 했지만, 장르적으로 아주 세련된 누아르입니다.” 배우 이병헌(49·사진)이 다음 달 개봉하는 영화 ‘남산의 부장들’을 이같이 표현했다.

이병헌은 1979년 ‘제2의 권력자’라 불리던 중앙정보부장이 그해 10월 26일 대통령을 암살하기 전 40일간 이야기를 담은 정치 드라마다. 1990년 연재된 논픽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한다.

이병헌은 대통령을 암살하는 중앙정보부장 김규평을 연기했다.

12일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에서 열린 제작 보고회에서 이병헌은 “실제 사건과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관객도 감정입입을 갖게 할 수 있는 강렬한 영화가 될 것”이라고 영화의 매력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실제 사건과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라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다. 실제 사건이 왜곡되는 것을 많이 경계했다”며 “역사적인 사건만 알고 있을 뿐 그 당시 인물의 감정이나 관계를 보여주려고 했다. 온전히 시나리오에 있는 대사와 그에 맞는 감정을 연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자료와 증언, 인터뷰 등을 찾아보면서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실존인물 중앙정보부장 김규평 역

대통령 암살하기 전 40일간의 이야기

영화 ‘백두산’과 다음달 연달아 개봉

그가 출연한 또 다른 영화인 ‘백두산’과 연달아 개봉하는 데 대해서는 “다른 장르, 다른 톤의 두 작품이 개봉한다는 점에서는 좋기도 하지만, 너무 한 캐릭터가 쉽게 잊힌다는 아쉬움도 있다”고 털어놓았다.



‘남산의 부장들’ 세 주연배우 이병헌·곽도원·이희준(왼쪽부터).

영화는 40일이라는 시간을 통해 전 세계에 한국 정권의 실체를 고발하는 ‘코리아 게이트’부터 대통령 암살까지 일련의 사건을 펼쳐 보인다. 대통령 박통은 이성민, 전 중앙정보부장이자 내부고발자인 박용각은 곽도원,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경호실장 박상천은 이희준이 연기했다.

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낸 곽도원은 “이런 자리가 오랜만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자신이 맡은 역할에 대해 “실존했던 인물이지만 자료가 별로 없었다”며 “쫓기면서 생과 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는 어떤 고통이 느껴질지 생각했다”고 돌아왔다.

이희준은 역할을 위해 몸무게를 25kg 늘렸다. 이희준은 “(제가 맡은) 실제 인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해서 양쪽 자료를 다 찾아봤다”며 “결국 한 인간이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 인간 자체에 공감하려고 많이 애썼다”고 말했다.

연출은 ‘내부자들’ (2015)과 ‘마약왕’ (2018)을 연출한 우민호 감독이 맡았다.

우 감독은 “20여년 전에 우연히 원작을 접했는데 흥미롭게 읽었다. 언젠가는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며 “원작은 중앙정보부의 시작과 끝을 다루고 있어 방대했다. 그중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40일의 순간을 담아보고자 했다”고 했다. /연합뉴스

초보 유튜버 나영석 PD

“앞으로 공약은 무공약”

“앞으로 공약은 걸지 않겠습니다. 무공약이 공약입니다.”

유튜브 채널 ‘십오야’ 구독자 100만 달성 시엔 지원과 이수근을 달나라에 보내겠다고 공약을 걸었다가 한바탕 근육을 치른 나영석(사진) PD가 다시는 공약을 걸지 않겠다고 나서며 털어놓았다.



나 PD는 14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tvN 즐겨움전 2019 with 토크’ 토크 세션에서 이처럼 말했다.

실현 불가능한 ‘달나라 보내기’ 공약을 걸었다가 구독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자 급기야 구독 취소 캠페인까지 벌였던 나 PD는 “말을 대폭 줄이기로 결심했다. 임조심 기간이 무기한으로 연장돼서 공약을 거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며 웃었다.

그는 “방송을 심땀년 했지만 초보 유튜버다. 아무 얘기나 하면 되는 줄 알았다. 적당히 달나라처럼 꾸며놓고 찍으면 되겠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데 구독자들이 우리가 하려는 모든 게 안된다고 하니 무섭더라. 고민 끝에 생각한 게 구독 취소를 부탁드리는 캠페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시간으로 2만명 정도가 빠져들 때 사랑을 온몸으로 느꼈다”고 농담조로 얘기했다.

나 PD는 단 5분짜리 예능으로 화제를 모은 ‘신서유기 외전 - 아이슬란드 간 세기’ 편성 뒷얘기도 들려줬다.

“많은 분들이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그렇게 전략적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운을 떼고 “5분 편성이 아니라 5분만 찍어서 ‘삼시세끼 산촌편’ 끝나고 예고 나갈 때 불어서 내보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현빈-손예진 tvN ‘사랑의 불시착’ 6.1%로 경쾌하게 시작

현빈과 손예진, 두 토크배우에 북한 배경 로맨스라는 독특한 설정을 내세운 tvN 새 주말극 ‘사랑의 불시착’이 첫 회부터 6%를 돌파했다.

15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방송한 이 드라마 1회 시청률은 평균 6.1%(이하 비정상과 유료 가구), 순간 최고 7.3%로 집계됐다.

첫 방송에서는 패러글라이딩하던 중 돌풍에 휩쓸리는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남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손예진 분)와 우연히 그녀를 발견한 북한 장교 리정혁(현빈)의 모습이 그려졌다.

이 작품은 ‘내조의 여왕’ (2009), ‘넝쿨째 굴러온 당신’ (2012), ‘별에서 온 그대’ (2013-2014), ‘프로듀사’ (2015), ‘푸른 바다의 전설’ (2016-2017) 등을 탄생시킨 박지는 작가의 신작답게 내내 코믹하고 경쾌한 톤을 유지했다.

무엇보다 영화 ‘공조’에 이어 또 한 번 카리스마와 인간적 면모를 함께 지닌 북한군을 연기한 현빈, 그리고 ‘푸른 바다의 전설’ 속 전지현을 보는 듯 명랑한 매력을 보여준 손예진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내용 면에서는 첫 회부터 세리 집안의 상속 과정, 각 캐릭터 특성, 세리와 정혁이 만나는 과정, 로맨스 배경이 될 북한의 모습까지 여러 이야기기 빠

른 속도로 그려지면서 몰입감도 높였다.

그러나 시청자 호불호는 크게 갈렸다. 특히 이번 주말 북한이 ‘중대한 시험’에 나선 상황에서 북한을 배경으로 한 로맨스 드라마를 보는 게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생각보다 높았다. 물론 ‘더 킹 투하츠’ (2012) 등 과거에도 북한을 소재로 한 로맨스 극은 있었다.

연출을 맡은 이정호 PD도 부정적 반응을 예상했는지 앞서 제작발표회에서 “북한 소재 자체가 거부감이 들 수 있지만, 드라마상에서는 네 남매가 로맨스를 할 수 있는 단절된 공간으로서 작용한다. 로맨스와 어우러지는 재미 요소로 보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연합뉴스

TV프로그램 16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 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나쁜사람	35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닥터 365 35 맞 좀 보살려요
9	30 KBS 뉴스	00 꽃길만 걸어요(재) 40 무한리필 샐러드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45 UHD 특선 드라마 W	10 SBS 뉴스 20 KBC 생활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11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5 제보자들(재)	00 12 MBC 뉴스 20 전국시대(재)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교육청 시리즈 55 정재영의 이슈N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KBS 재난방송센터(재)	1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20 헬로킴지 동물교실 2 50 2시 뉴스 외전	55 닥터 365
2	00 KBS 뉴스 10 연중기획 -빛고을행복아카데미			00 뉴스브리핑
3	10 전라도 매력청(재)	00 KBS 뉴스타임 10 차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0 뽀뽀뽀 모두가 놀자 스페셜 50 뽀뽀뽀 모두가 놀자	
4	00 사사건건	00 무한리필 샐러드(재)	20 나쁜사람(재)	00 건강한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재)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영화가 좋다(재)	00 5 MBC 뉴스 25 언니네 샐롱 스페셜	00 SBS 오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25 오매! 전라도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재)
7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우아한 모녀	30 MBC 뉴스데스크	00 법률 365 05 고향전문록 남도에 살어리랏다(재)
8	30 꽃길만 걸어요	30 글로벌24 55 옥탑방의 문제아들	55 스트레이트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 9		50 마이 리틀 텔레비전 V2	
10	00 가요무대	00 개는 훌륭하다		00 VIP
11	00 더 라이브 40 저널리즘 토크쇼 J(재)	20 한국영화 100년 더 클래식 (박희사탕)(재)	10 언니네 샐롱	10 동상이몽2 너는 내운명
12	35 KBS 뉴스 45 생활의 발견		35 UHD 영상 스페셜 산책	30 나이트 라인

EBS1

07:00 로보가 폴리	13:00 EBS 다크프라임	18:00 꾸러기 천사들
07:30 뽀뽀뽀 뽀로로	13:55 벌일 없이 산다	18:30 최고! 호기심 딱지
07:45 페파 피그	14:45 물랑	19:00 스파이더맨
08:00 댕동맹 유치원	14:55 꼬마버스 타요(재)	19:30 생방송 판다다
08:30 애코와 친구들	15:10 로보가 폴리(재)	20:00 머털도사
08:45 최고! 호기심딱지	15:25 제로니모 스틸턴의 모험	20:30 아기 동물 귀여워
09:00 엄마 까투리	15:55 엄마 까투리(재)	20:50 세계테마기행 1~2부
09:30 원더볼츠	16:10 최고! 호기심딱지(재)	<로마로 가는 길-악마가 사랑한 천국>
10:00 지식의 기쁨	16:25 페파 피그(재)	21:30 한국기행
10:30 한국기행(재)	16:40 댕동맹 친구들-장난감나라의 비밀	<츄리썬도 좋아, 츄리기행 1부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00 EBS 뉴스	츄리 한 그릇이 뭐라고>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20 그림을 그려요	21:50 EBS 다크프라임
12:00 EBS 정오뉴스	17:30 애코와 친구들(재)	22:45 다문화 고부 열전
12:10 다문화 고부 열전	17:45 마사와 곰(재)	23:35 벌일 없이 산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2월 16일(음 11월 20일 丁亥)

<p>36년생 근거가 빈약하다면 설득력을 얻기 힘들 것이니라. 48년생 성숙한 관계로 이끄는 것이 이익이다. 60년생 편견 없이 판국을 살핀다면 반드시 해법을 찾을 수 있다. 72년생 보는 이가 없는 곳에서도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84년생 방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발생함을 알라. 96년생 모순이나 미비점이 보이거든 무시하지 마라. 행운의 숫자 : 39, 55</p>	<p>30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접하게 될 수 있다. 42년생 패도난마 했을 때 참신한 대안을 찾게 된다. 54년생 공들인 노력에 정 비례해서 얻은 결과가 나타나리라. 66년생 머지않아 변화의 바람이 불 것이니 차분하게 기다려라. 78년생 중대를 갖고 마음을 굳게 먹어야 흔들리지 않는다. 90년생 장기적으로 대처해야 할 단계이다. 행운의 숫자 : 46, 88</p>
<p>37년생 앞뒤를 잘 가리어서 뛰어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49년생 일찌감치 긴장했다가 풀리는 양태이다. 61년생 뜻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는 하나 이익은 미지수다. 73년생 이론보다는 경험을 우선해야 할 때이다. 85년생 중요한 일을 다루게 될 것이니 심사숙고해야 한다. 97년생 단독의 입장은 영향력이 약하니 함께 하도록 하자. 행운의 숫자 : 80, 85</p>	<p>31년생 다 듣고 나면 전모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43년생 경험의 참작과 전문성이 옳은 판단으로 이끈다. 55년생 표면 일 뿐이므로 동료될 필요는 없다. 67년생 상대를 파악하고 입한다면 절반은 이론 셈이다. 79년생 복잡하게 얽혀 있던 것이 가닥이 잡히는 시기이다. 91년생 진정성을 가지고 임한다면 받아들여지게 되어 있다. 행운의 숫자 : 35, 94</p>
<p>38년생 상당한 저항에 부딪힐 수도 있으나, 50년생 무의미한 판국이다. 62년생 내버려 두면 큰일 나게 될 것이다. 74년생 길정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86년생 깔끔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골칫거리로 남는다. 98년생 겉은 매끄럽지만 내부에는 문제의 씨앗이 움트고 있다. 행운의 숫자 : 28, 91</p>	<p>32년생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년생 절대적인 확신이 있어야 한다. 56년생 개별적으로 행하는 것이 제일 편하고 빠르다는 것을 알라. 68년생 판도를 크게 바꾸어 놓는 게기가 될 것이다. 80년생 기다리고 있으면 머지않아 해답을 얻는다. 92년생 모두가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것을 알라. 행운의 숫자 : 34, 64</p>
<p>39년생 대처 방안이 요청된다. 51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 하는 것이 낫다. 63년생 요령이 있어야겠다. 75년생 답답하겠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될 것이다. 87년생 진퇴가 분명해야 한다. 99년생 순리대로 풀어나간다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한다. 행운의 숫자 : 36, 84</p>	<p>33년생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도 있으나 기대 해도 된다. 45년생 옛 인연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니 그에 따른 준비를 하자. 57년생 양자 사이에서 곤란한 처지에 놓인다. 69년생 낙관 하다가는 큰일을 그르친다. 81년생 낮은 곳으로 임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93년생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으나, 행운의 숫자 : 12, 70</p>
<p>40년생 발돋움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리라. 52년생 좀 더 나은 조건으로 변경 될 것이다. 64년생 아침의 근심이 저녁이 되면서 진정 국면을 맞는다. 76년생 실수로 인한 누락이나 흠결의 피해가 클 수도 있는 날이다. 88년생 각별히 신경 쓰자. 00년생 유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진보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03, 53</p>	<p>34년생 기대를 잔뜩 했다가 막상 펼쳐 보면 허망할 것이다. 46년생 대체로 순조로운 편이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58년생 판국을 뒤엎을 수도 있는 위력이다. 70년생 비슷한 처지여서 쉽게 공감 하리라. 82년생 작은 흠결이 결정적인 패착의 원인이 된다. 94년생 사리에 맞게 처신하면 문제 될 것이 없다. 행운의 숫자 : 21, 58</p>
<p>41년생 아무런 걱정 하지 말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도 되겠다. 53년생 길은이 들어오고 있으니 문을 활짝 열어 쫓겨라. 65년생 애초부터 대동소이하였던 바이니 굳이 구분할 것까지 없다. 77년생 좋게 하려다가 더 망칠 수도 있다. 89년생 생리하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할 때가 되었다. 01년생 탄마음을 먹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1, 77</p>	<p>35년생 염려할 정도는 아니다. 47년생 그룹에 고기가 많이 잡힌다. 59년생 수호가 늘어남서 속도 되지만 어수선해진다. 71년생 가짜 판국에서 진짜가 파묻히는 애석함이 보인다. 83년생 반복하는 것도 무방하리라. 95년생 이미 틀어진 지 오래되었다. 행운의 숫자 : 47, 92</p>